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지음

권씨는 땀을 흘렸다. 숨을 헐떡거렸다. 칩을 툇툇 뺐었다.
 실상 그것은 칩이 아니었다. 구두를 구두 아닌 뭉텨트로,
 구두 이상의 다른 어떤것으로, 다시 밟아서 인간이 밟아다
 꺾차는 물건이 아니라 영공 가운데로 장식하는것으로
 바꿔놓으려는 [redacted] 동시에 신들린
 마법 [redacted] 었다.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지음



홍콩
조선민족

출판사

2016 · 할빈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男人的九双皮鞋：朝鲜文 / 尹兴吉著. — 哈尔滨：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16.7
ISBN 978-7-5389-2254-7

I. ①男… II. ①尹… III. ①短篇小说—小说集—韩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312.64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6)第 159073 号

书 名 / 男人的九双皮鞋
著 者 / 尹兴吉
责任编辑 / 崔冬梅
责任校对 / 宋英爱
封面设计 / 李光吉
出版发行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 0451-57364224
电子信箱 / hcxmz@126.com
印 刷 /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 640mm×960mm 1/16
印 张 / 21
字 数 / 280 千字
版 次 / 2016 年 7 月第 1 版
印 次 / 2016 年 7 月第 1 次印刷
书 号 / ISBN 978-7-5389-2254-7 (民文)
定 价 / 36.00 元

차례

하루는 이런 일이…… 3

양…… 31

엄동…… 68

그것은 칼날…… 106

빙청과 심홍…… 125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47

직선과 곡선…… 202

날개 또는 수갑…… 254

창백한 중년…… 286

작가후기…… 305

신판 작가후기…… 307

초판해설 개인과 사회의 력학 오생근…… 309

신판해설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련작의

현재적의미 성민엽…… 319

이 소설총서는 초판간행 이후 시간의 벽을 넘어 끊임없이 독자와 평자들의 애호와 평가를 끌어 열고있는 말의 바른 의미에서의 “스테디셀러”들을 충실한 원본검증을 거쳐 다시 찍어낸, 새로운 감각의 판형과 새로운 깊이의 해설로 그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 우리 시대 명작소설들이 펼치는 문학적축제의 자리이다.

차례

하루는 이런 일이.....	3
양.....	31
엄동.....	68
그것은 칼날.....	106
빙청과 심홍.....	125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47
직선과 곡선.....	202
날개 또는 수갑.....	254
창백한 중년.....	286
작가후기.....	305
신판 작가후기.....	307

초판해설 개인과 사회의 력학 오생근…… 309

신판해설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련작의
현재적의미 성민엽…… 319

이 소설총서는 초판간행 이후 시간의 벽을 넘어 끊임없이 독자와 평자들의 애호와 평가를 끌어 열고있는 말의 바른 의미에서의 “스테디셀러”들을 충실한 원본검증을 거쳐 다시 찍어낸, 새로운 감각의 판형과 새로운 깊이의 해설로 그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 우리 시대 명작소설들이 펼치는 문학적축제의 자리이다.

하루는 이런 일이

불의보다는 정의쪽을 훨씬 더 사랑하면서 평생을 바르고
숫접게만 살아왔다고 늘 자부하는 선량한 시민 송교수
집에 어느날 좀 희한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른바 협박전화
였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뵙고 말
씀을 나누겠다는 일방적인 전화가 또 걸려왔다. 도시 뭐가
뭔지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처음만 해도 송교수는 허물없이
지내는 어떤 친구의 지꼇은 장난이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그게 아니라면 대상을 잘못 짚고 내지른 수작
임이 너무도 분명해서 녀석 헛다릴 굶는군 하고 가볍게 웃
어넘기려 했다.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내용의 전화
가 두번씩이나 걸려오고부터는 문제가 차차 심상치 않아졌
다. 이거 보통으로 알았다간 큰코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부쩍 드는것이였다. 이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 송교수는
점차로 심각한 고민의 늪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두번째 전화를 받고 한참이 지난 다음 송교수는 뒤죽박죽이 된 생각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았다. 명문대학의 저명 교수라고 명색은 그럴듯해도 실상 기업인에 고용된 포장공이나 선반공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가난뱅이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는 자기한테 금품따위를 요구하는것부터가 어쩐지 석연치 않았다. 그자가 순전히 돈에 목적이 있다면 역시 그자는 상대를 잘못 선택한것이 틀림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그 수많은 실업인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 나 같은 가난뱅이 교수한테 손을 내밀다니, 공갈범치고는 그 순진성이 가상스러울 정도로 얼나간 친구였다. 이런 점에서 어느만큼 자신을 얻어 송교수는 장난질 좋아하는 친구쪽에 가능성을 두고 그럴만한 사람을 물색해보았다. 전에도 한번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돌린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건성이였으므로 이번에는 아주 세세한데까지 파고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봐도 자기 친구들가운데 그럴만한 사람은 없었다. 장난이라고는 해도 그렇듯 야비하고 몰상식한것을 할만한 친구라면 원래 사귀지를 않는 성미였다. 같이 모여 가끔 바둑도 두고 등산도 하고 전공에 관한 학견도 교환하는 친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인격자였고 원만한 성품들이였다. 자기가 그들을 신뢰하고 아끼듯 그들도 자기를 아끼고 신뢰해주었다. 송교수는 것처럼 다정한 친구들한테 잠시나마 혐의를 걸었던 자신의 과오를 금방 뉘우쳤다. 그래서 각도를 약간 달리하여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에 흔히 있기 쉬운 원한관계쪽을 푹푹 두드려보았다. 있을것 같지 않았다. 아니, 있을수가 없었다. 신을 넘겨 살아오는 동안 말다툼이

나 손찌검은 물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친구는 이따금 그를 가리켜 법 없이 살 사람, 또는 털어도 먼지 안 날 세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고 통담들을 했다. 그들이 얘기하는 세 사람중 다른 두 사람은 외경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였다. 놀리기 위한 소리니까 그것이 그의 무고를 증명하는 마당에 무슨 알리바이와 같은 효력을 가질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협박자가 들먹이는 법에 저촉될만한 행위 운운은 적어도 송교수 그의 경우에 한해서는 당최 어림도 없는 얘기였다.

요모조모로 궁리해봐도 신통한 단서가 잡히지 않자 그는 난데없는 전화로 말미암아 생긴 잡념들을 서랍을 닫듯 망각속에 묻어버리고싶어서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실마리가 풀릴듯한 기분이 갑자기 느껴지면서 선명히 떠오르는 한 얼굴이 있었다. 최고수였다. 그는 최고수의 유들유들한 상판을 뇌리에 새기면서 왜 그 생각을 진즉에 못했을까 하고 자탄을 했다. 최고수 그 사람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차마 교수 체면에 직접은 못할테니까 어쩌면 사람을 시켜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보니 전화내용가운데 미심쩍은 점들이 술한것 같아 아마추어의 소행임을 거의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파렴치범들에 관해서 그는 나름대로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있었다. 젊었을 때 읽은 탐정소설이나 만화랄지 요즘 흔히 보는 연속방송극들의 은근한 영향일것이였다. 아무튼 그 고정관념에 의하면 공갈이나 협박을 업으로 삼는 부류들은 모름지기 얼굴부터가 험상궂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저

음으로 상투적인 말들을 야비하게 지껄일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재미 적다거나 경찰에 알리면 생명이 위험한줄 알려거나 하는 식으로 거기에 소름이 쭉 끼치는 야릇한 웃음까지 한두차례 곁들인다면 아주 잘하는 협박이었다. 대개 이런 것들이 송교수가 파렴치범들에 요구하는 필수조건들이었다. 그런데 자기한테 전화를 건 그 친구는 고정관념이나 상식에 부합되는 구석이 조금도 안 보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레의를 갖추어 점잖은 말씨로 용건만 차근차근 얘기하는 친구라면 공갈범으로서는 여지없이 미역국이였다. 더구나 협박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겨우 십만원이란것도 상식밖의 일이었다. 월급쟁이 주제에 십만원이 결코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까지 자기가 들어온 여느 범행들에 비하면 액수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뜻이다. 한번 동료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갈수록 한정이 없었다. 여러가지 징후로 미루어 최교수의 소행이 틀림없을상싶었다. 최교수 그 사람이면 사사로운 감정 같은걸 능히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도 남을 위인이였다. 그런 사람과 한무더기로 싸잡혀 교수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만큼 대단히 형편없는 친구였다. 아무리 너그럽게 대해주어도 되돌아오는건 언제나 조소와 까닭없는 중상모략뿐이어서 이젠 모든걸 그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돌려버리고 해오라기가 왜가리 등속을 대하듯 덤덤하고 천연스럽게 지내는 처지였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닌 일에도 제법 로련한 수사관처럼 재치있게 돌아가는것에 소홀찮은 재미마저 느껴가면서 동료에 대한 혐의를 점차로 보강해나갔다. 사건이 거의 해결된거나

다름없이 생각되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그러나 얼마 아니 가서 그는 궤재의 길 끝에 도사리고 있는 오리무중의 벽과 다시 조우하게 되었다. 최교수가 정말 범인이라면 전화로 몇차례 협박하는 선에서 범행은 그쳐야 한다. 사람을 시켜 하는 일이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꼬리가 잡혀 종당에는 망신을 당하고말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무릅쓰가며 직접 방문하게 만들 바보는 아니였고 또 것처럼 철저히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원한 같은건 애당초 둘 사이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대관절 누구일가. 누가 무슨 리유로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인단 말인가. 누가 무슨 리유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대관절 누가 무엇때문에.

그러자 골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기 시작했다. 박사학위논문을 쓰던 때보다도 더 많은 정신력이 소모되는것 같은 기분이었다. 송교수는 결국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을 굳혀버렸다. 마땅히 그랬어야만 했다. 만원빠스속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발등을 밟힌 셈치고 처음부터 무시를 했어야 옳았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우선은 마음을 편히 가지자고 단단히 작정했다. 경찰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건 아니였다. 경찰에 사실을 알려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도싶어졌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로는 경찰에 알리고 마잘 건덕지가 전연 없는거나 마찬가지 상태였다. 매우 레의 바른 말씨의 어떤 사내가 전화로, 비밀과 맛바꿀 십만원을 마련하라고 두차례 전해온적이 있다 하면, 그걸 진담으로 알아듣고 신변보호에 나설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설령 경찰에서 고맙게도 수사에 나서준다 해

도 차후로는 그런 협박이 일체 오지 않거나 친구들의 지긋은 장난임이 밝혀지는 날이면 점잖은 교수 체면에 그게 또 무슨 망신이나. 그리고 진정 자기를 노리는 범인이 있어 경찰에 알린 기미를 채고 가족이라도 해친다면 그것 또한 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마음을 정할수가 없어 다음 일을 더 기다려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처신하기로 마침내 방침을 정했던것이다. 그까짓 협박쯤에 겁낼 송교수가 아니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 전갈에 가까웠다. 그러나 협박이든 전갈이든간에 량심과 지성으로 세상을 그저 옳바르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송교수로서는 사실 조금도 두려울게 없었다. 세상에 폭로되면 인격과 명예에 치명상이 될 일금 십만원 상당의 비밀이나 비위사실이 과거 신상에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에도 있을턱이 없었다. 뿐만아니라 자기는 어디까지나 교육자였다. 보아하니 상대방은 고학생을 자처하는 젊은 사람인 모양인데 어디까지나 교육자적량심에 립각하여 비뚤어진 젊은이를 옳바른 방향으로 훈도할 무거운 책무마저 자기에겐 주어져있었다. 통고했던대로 이튿날 그가 정말 눈앞에 나타날 경우 송교수는 따스한 인간애와 차거운 논리를 겸용해가면서 상대방 젊은이로 하여금 끝내 참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설득을 펴기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매사가 자로 잔듯 꼼꼼하고 신중한편인 송교수는 만일의 경우, 정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관공서의 일과 시간이 끝나기전에 시내에 나가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미리서 한가지 조치를 해두었다. 자기 혼자 몸이라면

아무리해도 괜찮았다. 전도양양한 젊은이 하나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려다 어떤 위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교육자로서 너무도 떳떳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기는 처자가 딸린 몸이었다. 평생 고락을 함께 나눈 믿음직스런 안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 언제 보아도 금쪽같았다. 자기야 얼마든지 괜찮지만 자기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털끝만치라도 다치게 되는 날이면 그로서는 그것 이상의 괴로움이 또 있을것 같지 않았다. 자기가 취한 조치속에는 그 이외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전혀 섞이지 않았으므로 가족들한테 잠시 비밀로 했다. 해서 량심에 거리낄거라곤 그다지 없었다.

선량한 시민 송교수는 겨우 이렇게 한시름 놓고나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바로 수법의 정교함이였다. 자신의 추측이 정확한것이라 가정한다면 상대방의 수법은 참으로 고차적인것이 아닐수 없었다. 경찰에 연락하기엔 차마 낮 간지러울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없었던 일처럼 묵살해버리자니 이걸 마음이 산란해서 못 견딜만큼 사람을 골탕 먹이는 그 교묘함. 협박도 이쯤 되면 참으로 박수를 보낼만했다. 공갈범치고는 너무 얼빠진 녀석이라고 비웃던 자신이 인제는 되려 안쓰러워지는 판이었다. 자기는 지금 만만찮은 친구를 상대하고있는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송교수를 다시 우울하게 만드는것이였다.

“송범섭선생님이시죠? 어제 그제 전화로 거듭 말씀드렸던 그 고학생입니다. 제 상품을 구입하실 준비가 다 돼있는 줄 알고 약속대로 댁을 방문하겠습니다. 십분후에 직접 찾아가뵙고 상담을 나눌가 합니다.”

존경받는 학자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인 송교수는 이튿날 아침에 예의 그 일방적인 전화를 또 받았다. 인제는 십분후였다. 어제밤만 해도 설마 하면서 잠자리에 들수 있었던 그 일이 인제는 십분후의 현실로 바짝 다가온것이다. 가족들 앞에서 여유를 보이려고 송교수는 무진 애를 썼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협박자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지간히 침착한 태도로 이제 곧 눈앞에 벌어질 사태를 가족들에게 차분히 설명해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가족들이 받게 될 커다란 충격을 미리 반감시켜놓는 예방주사적역할외에 자기 자신도 여태껏 혼자서만 끙끙 앓아온 말 못할 고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가짐으로써 바늘방석 같은 십분 동안의 기다림이 주는 정신적고문을 가족들의 위로에 둘러싸여 다소곳이 견딜수 있게 만드는 이중의 효과가 있었다. 예상 못했던바는 아니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안해와 딸들이 보인 반응은 역시 대단한것이였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누구네 못지 않게 단란하던 가정 분위기가 순식간에 결단이 났다. 그리고 그것에 대신하여 응접실 그득히 자리잡은것은 한동안의 무거운 침묵과 갑작스런 의견충돌이였다. 큰딸답게 몸가짐이 의젓해서 매사가 너그럽고 차분한 성품인 금영이가 제일 먼저 의견을 말했다.

“아마 장난일거예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장난치곤 좀 너무하지만.”

“그래요. 큰애 말이 옳아요. 장난이 분명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보.”

안해도 그렇게 말했다. 안해는 장난임을 확신하기보다

장난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정으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딸 은영이만은 달랐다. 심각한 표정으로 판에 뭔가를 한참 궁리하고나더니 대변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었다.

“이건 절대루 장난질이 아네요. 전할 세번씩이나 걸구 십분후엔 직접 찾아오겠다는 공갈이 어떻게 장난으로 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진 않아요. 아빠, 빨리 일일이로 신고하세요. 언니나 엄마 말대로 누가 혹시 장난질을 쳤다 해두 자기가 저지른 죄만큼은 꼭 벌을 받도록 단단히 혼구멍을 내줘야 해요.”

그러자 안해가 덩달아 또 작은딸의 주장에 맞장구를 놓았다.

“맞았어요. 작은애 말마따나 벌을 받도록 만드는게 좋겠어요. 여보,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너고 졸업반 나이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성미가 유난한 작은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송교수는 안해의 말을 못 들은척했다.

“우리 은영아씨 맘은 잘 알겠다면, 그렇다고 그 말이 아빠를 아예 랭정한 사람으로 단정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기를 바란다.”

송교수는 제 분을 못이겨 연방 씹씩거리는 작은딸을 부드러운 말로 다독거렸다. 남편의 말을 듣고 안해가 펄쩍 뛰었다. 마치 벚꽃놀이가 한창인 창경원 한가운데서 보호자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안해는 아까부터 갈피를 못 잡고있었다.

“당신이 랭정한 사람이라니, 천만에요. 그럴리가 없어

요. 애, 은영아, 아빠는 절대로 랭정한 사람이 아니란다. 너도 잘 알잖니. 아빠는 감정대로 행동하고 특하면 누구한테 보복이나 하는 그런분이 아니예요.”

“엄마, 어째서 그게 보복이예요? 자기 몸에 위험을 느꼈을 때 국립경찰을 부르는건 민주주의국가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아무도 신고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래도 전화를 걸겠어요. 전 지금 아빠를 위해서 그러는거예요.”

“애, 은영아!”

안해가 눈을 꿈쩍거렸다.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야.”

금영이가 입을 비쭉거렸다.

“언닌 그럼 신분도 모르는 어떤 녀석이 용하다용한 아빨 협박해서 돈을 올거내려는 판인데 박수라도 칠 작정이유? 그런 효도는 난 죽어두 못하겠어!”

은영이가 악다구니를 썼다.

“애들아, 제발 부탁이다. 좀 조용히들 해라. 녀들마저 이룬다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안해가 딸들 사이에 들어 올상을 지어가며 언쟁을 말리고,

“금영이나 은영이나 다아 아빠를 위해서 그러는줄 잘 안다. 하지만 조금치도 넘려할거 없어. 너희들한테 아빠를 걱정해달라고 말을 꺼낸건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오직 이 아빠만을 믿고 모든 일을 아빠한테 일임해달라는 부탁뿐이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란걸 평